서울大學校 師大論叢 第18輯 (1978. 12. 30)

教育學的 大學의 槪念

韓 基 彦
(教育學科)

Ⅰ. 序 言

本稿에 있어서는 장차 우리가 建設하려고 하는 새로운 大學의 理念 내지 性格 및 類型은 무엇인지, 그것을 究明하기 위한 하나의 試圖로서 教育史教育哲學的接近을 꾀하여 보는데 그 目的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大學을 이름지어 「教育學的 大學」이라고 부르려고 하는 까닭을 다음의 세 가지 順序를 따라서 論及키로 하였다. 즉, 첫째는 大學의 理念과 類型의 歷史的展開라하여 古代의 大學으로부터 오늘날 美國의 大學으로써 代表되는 現代의 大學에 이르기까지 大學의 理念과 類型은 어떻게 變遷하여 왔는지 알아 보기로 하였다.

둘째는 教育學的 大學의 理念 및 構想에 관해서이다. 여기서는 앞으로의 世紀는 人類의 恒久的인 繁榮을 기하기 위하여서도 戰爭없는 永遠한 平和의 時代가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人類 전체의 企業으로서 教育에 置重해야 되리라고 보아 「教育의 世紀」라는 말을 쓰는 동시에 새로운 大學의 性格規定을 해 보기로 하였다. 결국 새로운 大學의 理念 및 構想은 「教育學的 大學」으로써 말하여져야 되리라는 것이다.

세째는 教育學的 大學에 있어서의 師範大學의 位置와 役割에 관해서이다. 여기서는 오늘날 아직도 우리나라의 師範大學이 그 固有한 使命과 機能을 올바르게 把握 覺醒치 못한채 並列的 大學觀에 허덕이고 있는 現實態를 批判하는 동시에 大學社會의 共同善이요 求心點으로서의 「教育學」과 師範大學의 役割에 대하여 밝혀 보려고 한다.

따라서 本稿에 있어서는 後二者에 관하여 보다 많은 紙面을 充當할 생각이다. 그 까닭은 本論題가 「教育學的 大學의 槪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Ⅱ. 大學의 理念과 類型의 歷史的 展開

古代로부터 現代에 이르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大學의 歷史를 大學의 理念 및 類型이라는 觀點으로부터 정리해 보면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倫理學的 大學을 비롯하여 神學的 大學, 哲學的 大學 및 科學的 大學이 그것이다.

1. 倫理學的 大學

이것은 中國의 古代大學을 가리켜서 이름붙여 본 것이다. 그 까닭은, 周代의 五學이나 漢代의 大學 그리고 唐代의 大學인 國子監이 그랬듯이 이른바 中國의 古代大學은 經·史로써 敎育內容을 삼았고 밝은 德을 지닌 人格者요 社會의 指導者를 培養하는 일을 目的으로 삼았다. (周予同/佐藤·多賀·林/余書麟, 參照). 그들은 훗날 官吏로서 登用되었거니와 明德者가 되기 위한 敎養이 重視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太學」(三國史記)(高句麗)이나 「國學」(新羅) 그리고 後代인 高麗의 國子監이나 朝鮮王朝時代의 成均館(韓基彦, 1971) 역시 이러한 中國의 古代大學으로써 代表되는 「倫理學的 大學」의 性格의 것이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東洋社會의 大學槪念이라고 해 두어서 좋으리라고 본다.

2. 神學的 大學

한편 西洋社會에서 大學의 槪念이 시작되는 것은 이른바 西洋中世大學(Rashdall/梅根/Newman/皇 至道/島田, 參照)이다. 그것은 당초 스투디움(Studium)이라고 하였던 것이요, 보로냐大學과 빠리大學은 그 先驅的 形態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빠리大學은 中世大學의 典型이 되어 英國의 옥스포오드와 케임부릿지 大學이라든가 獨逸의 하이델베르히大學을 위시한 北유럽大學 創建의 模範이 되었던 것이다.

이 빠리大學은 神學과 아울러 醫學과 法學이 專攻分野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神學은 단연 中心的 學問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大學行政管理面에 있어서 僧職者가 總長을 비롯하여 모든 면을 掌握하고 있었다는 것과 아울러 이 中世大學의 性格을 「神學的 大學」이라고 일컫게 하는 決定的 要因이 되었다고 하리라.

3. 哲學的 大學

그런데 大學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神學的 大學의 性格으로 부터 脫皮하는데 온갖 努力을 다하여 왔다. 그것은 僧侶出身敎授 對 非僧侶系 一般學者 敎授의 主導權 다툼으로도 나타났으며, 學問의 自由를 위한 鬪爭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마침내 學問을 위한 學問의 大學이라든지 象牙塔的 性格의 大學出現이 可能케 된 것이다.

이러한 近代大學의 先驅는 獨逸의 할레大學이었으며 이어서 나폴레옹軍隊가 進駐하고 있었던 프러샤에 세워진 베를린大學校이다. (Fichte/Steffens/Humboldt) 이 大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學問의 自由가 무엇보다도 高唱되었거니와 그 경우에 종래 낮은 地位의 한낱 敎養科目에 지나지 않았던 「哲學」을 學問中의 學問인 哲學으로서 專攻如何를 묻지 않고 모든 大學人이 궁극적으로 履修해야 될 가장 중요한 學問으로까지 哲學의 學問的 地位를 높이는데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이다. (Blättner, 184)*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近代 大學을 말함에 있어 베를린大學校를 想起하게 되고 그 大學의 理念은 學問을 위한 學問의 大學이오 象牙塔이요. 哲學的 大學이라고 類別케 되는 것이다.

4. 科學的 大學

이러한 近代大學의 典型인 베를린大學校를 模範삼아 발전시킨 것이 現代의 美國大學이다. (韓基彦/Horn參照) 이를테면 美國의 州立大學校가 그것인데, 여기에는 美國的인 性格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實用主義的 性格의 大學이라는 점에서이다. 즉 종래의 近代大學은 學問을 위한 學問의 大學이 되는 것을 至上目標로 하였지 學問研究와 地域社會의 諸問題解決을 위한 即刻的인 應用이라는 産學協同的인 發想은 전혀 缺如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오늘날 美國의 州立大學校를 비롯한 現代美國大學은 비록 職業主義(vocationalism)라는 헛친스系統의 批判(Hutchins, 1936. 1937. 1956)을 받아 가면서도 社會奉仕的 性格의 大學을 構築하는데 成功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는 보다 細分되고 緻密하며 深化된 科學的 研究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결코 現社會의 直接的 要求와 遊離된 學問研究가 아니라는 점에서 實用主義的 大學인 것이다. 哲學보다「科學」전반에 걸친 研究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특히 自然科學方面에 莫大한 經費가 投入되고 施設이 行하여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서 종래의 哲學的 大學과 類別하여 科學的 大學이라고 이름지어 본 것이다. 커어(Clark Kerr)가「멀티버시티」(multivertity)라고 호칭한 것 역시 현대의 미국 대학이 고도로 科學研究를 위한 機關으로서 多岐化한 現狀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인줄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의 美國大學으로 代表되는 現代大學의 性格을 가리켜 科學的 大學이라고 해 본 것이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實用主義的 大學이요 社會奉仕的 性格의 大學인 것이다.

Ⅲ. 教育學的 大學의 理念 및 構想

1.「教育의 世紀」와 새로운 大學의 性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장차 이룩해야할 새로운 類型의 大學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未來社會의 性格부터 規定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을 나는「教育의 世紀」라

theolog. Fakultät		jur. Fak.	med. Fak.
Philosophie=reine Wissenschaft			

고 해 보았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적어도 다음의 두가지 理由를 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로 歸結되는 理由이기도 하다. 단적으로 말해서 恒久的인 人類의 平和와 繁榮을 위해서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教育이야 말로 가장 큰 힘을 發揮할 社會의 基本的 機能이오 우리가 크게 期待해야할 만한 人類企業의 據點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教育에 크게 期待해야 할 理由로서는 첫째 이 地球로부터 永遠히 戰爭을 終熄시키기 위해서이다.(韓基彦, 1965, 366-387) 그러기 위해서는 「유네스코憲章」에서도 말하여 졌듯이 人類의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진정 平和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키워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教育의 힘에 의해서 可能할 것이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教育에 크게 기대하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 理由로 들게 되는 것은, 설사 이러한 어려운 恒久的 世界平和의 時代를 到來케하는데 成功하였다고 하여도 계속적인 人類의 繁榮을 위해서는 여전히 教育은 必要한 것이다. 그것은 새삼 說明할 나위도 없이 우리 人類가 教育의 손길을 멈추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수많은 人類의 後繼者들은 無知人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人類文化의 繼承은 斷絶될 것이오 急速한 人類文化의 荒廢化가 進行되고야 말 것이기 때무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社會는 機械文明의 高度한 發展으로 해서 人力 대신에 機械에 의한 廣範한 自動化가 이룩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反面, 「教育」은 機械의 도움과 그것을 利用하는 일도 더욱 활발해지기도 하겠으나 역시 人間自身, 특히, 教育者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면 안되는 가장 으뜸가는 領域이 될 것임도 틀림없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人類가 「教育」에 期待하는 分量은 어느 때보다도 急增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위에 든 두 가지 理由, 즉 戰爭을 永遠히 終熄시키므로써 恒久的 世界平和時代의 到來를 可能케 하기 위해서도 「教育」은 必要한 것이며, 또한 일단 이룩해 놓은 恒久平和世界의 持續과 人類文化의 發展 및 人類의 繁榮을 確固히 하기 위해서도 「教育」은 더욱 緊要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실로, 未來社會를 가리켜 「教育의 世紀」라고 이름붙혀 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大學의 性格 또한 여기에 副合된 理念과 類型의 것이 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름붙여 「教育學的 大學」이라고 해 보았다. 여기에 있어 「教育學」이 中心的教養科目이 되리라는 것은 그 옛날 哲學的 大學의 경우에 哲學이 이룩했던 役割에 비추어 보아 쉽사리 類推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하 좀 더 具體的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論旨에 대하여 解明해 나가기로 하겠다.

2. 東西 大學槪念의 止揚

오늘날 우리나라 知性人 一般에 널리 퍼져 있는 大學의 槪念은 西洋의 大學槪念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때로 神學的 大學인 西洋中世大學의 경우를 머리에 그릴수도 있는 것이고 아

니면 피히테나 훔볼트流의 近代大學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歐美現代大學의 槪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大學의 3大機能인 硏究와 敎育과 社會奉仕라는 말은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는 大學의 槪念인 것이다. 그러나 反面, 東洋의 大學槪念이라고 할 때에는 우선 東洋에 본래 大學이 存在한 적이 있느냐고 되물을 정도인 것이다. 또한 설사 그 存在를 마지 못하여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衰落해 버린 過去의 遺物이요 東洋의 大學槪念이 貢獻할 餘地는 오늘날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斷定하고 있는 것 같다. 과연 東洋의 大學槪念에서는 취할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 겠는가? 우리는 이 疑問부터 풀어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여기에 있어 잠시 歐美大學의 改革을 특히 理念面에서 摘記해 보기로 한다.

美國 캘리포니아大學校 아바인校(Irvine Campus)의 경우는 「敎育目標」로서 다음의 네가지 特性을 지닌 人間育成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첫째, 自立할 수 있는 人間의 育成.

自立할 수 있는 人間의 育成은 專門的으로 分化된 課程의 單位履修에 의해서 達成되는 것은 아니다. 大學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것보다도, 우선 배우는 것이 强調되어야 한다. 敎育에 있어서의 自主性의 涵養을 目標로 하고 그것을 위한 自主的 硏究가 學習의 方法으로써 採用되어야 한다.

둘째, 分析能力이 있는 人間의 育成.

現代의 知識은, 그 總量이 방대하며 그 變化가 급격한 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現代에 있어서는 個個 人間이 모든 知識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바랄수도 없는 것이며, 現代人은 스스로 專門分化된 人間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視野가 넓은 人間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現代人은 百科全書를 驅使하는 人間으로서, 결코 百科全書 그 자체는 아니다. 大學에 在學하는 한정된 年限으로, 학생이 그 專門領域에서 必要로 하는 知識의 모든 것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不可能하며, 또 이것을 몸에 지니게 해야 할 것도 아니다. 學習은 成果로서라기 보다는 過程으로서 把握되어야 할 것이다. 知識을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核이 되는 諸槪念, 基礎的인 分析에 필요한 수단, 그리고 더욱 지식을 擴大하고 생산할 수 있는 方法이 重視되어야 한다.

세째, 實行力이 있는 人間의 育成.

大學은 知識을 定着시키고 保存하는 힘으로서의 역할과 先驅者, 實驗的 作業의 대변자로서의 理想의 源泉으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우리 敎授團은 獨創性과 方向性을 지닌 參加와 實行을 探究하는 자이다. 과거의 대학은 이와같은 必要에 대하여 대체로 입으로만 奉仕하고 있었다. 일부 우수한 대학에서는 개개 敎授團 성원이 助言을 통하여 이 면에 대하여 커다란 역할을 해왔으나 公的 機關으로서의 大學은 이 문제를 등한시해 왔다고 하리라. 훌륭한 大學은 자진해서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人間을 養成해야 할 것이다.

네째, 道德的인 人間의 育成.

학교교육을 意義 깊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大學은 어떤 기회에 어떤 方法으로서든지, 학생에게 다음의 것을 自覺시켜야만 된다. 즉 학생은 選擇이라는 行爲를 피할 수 없다는 것, 또 그 選擇은 학생자신만이 아니라, 그 소속하는 地域社會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자각시켜야만 된다.

학생이 그 道德的인 責任에 관하여 自覺을 深化시키도록 도와주는 책임은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敎授團과 管理者는 자기의 價値觀을 강요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觀念의 틀안에 학생을 판박으려고 하는 것을 삼가야 될 것이다. 학생에게는 스스로가 '選擇'할 義務와 自由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敎授團은 原始로부터 20세기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人類에게 영향을 끼쳐온 온갖 理念과 價値觀을 학생에게 提示하고 어째서 어떤 道德的·社會的 價値觀이 문명사회에 의하여 받아드려져 왔는가를 指摘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履行하여야 할 義務에 관해서 理解하겠끔 도와주며, 善과 惡과의, 그리고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差異를 학생에게 自覺시킨다는 責任을 지니는 것이다. (Liaison Commttee of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and the Regents of California)라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敍述된 大學敎育의 目標에 접한 감이 있다고 하겠다.

한편 1968년 11월에 公布된 프랑스의 「高等敎育基本法」(*Loi dórientation de lênsignement supériéur*)에는 '高等敎育의 使命'에 대하여 第1章 第1條에 다음과 같이 明示하였다.

大學(Université) 및 本法의 規定이 適用되는 機關(établissement)의 基本的 使命은 知識의 鍊成과 그 傳達, 硏究의 발전 및 人間形成에 있다.

大學은 문화와 연구의 水準을 最高度로 유지하고, 그것을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 및 適性과 能力있는 모든 자를 받아 드리는데 힘써야 될 것이다.

大學은 온갖 분야의 人材를 供給하고, 각 지방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參與하므로써 국가의 요청에 對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은 産業技術의 革新에 의해서 요구되는 民主的 進展에 順應하여야 한다.

敎員 및 硏究員에 관해서는, 대학은 思考와 知的 創造에 불가결인 獨立과 靜穩下에 그 교육·연구 활동 수행을 위한 手段을 확보해야 된다.

學生에 관해서는 大學은 학생이 장래 종사하는 職業活動에의 指導와 그 的確한 選擇의 方法을 확보하는데 힘쓰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만이 아니라 人間形成의 基盤을 부여하여야 한다.

大學은 균형이 잡힌 完全한 人間形成의 基本的 條件인 학생의 文化·體育·社會活動을 助長하는 것으로 한다.

대학은 국민교육의 敎師를 양성하고, 각종 敎員의 각기의 任務遂行을 저해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 이 養成의 全體的 統一性을 지키고, 또한 敎育方法의 부단한 改善과 지식 및 교육수단의 革新을 可能케 하는 것으로 한다.

高等敎育은 졸업생 및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能力에 따라서 昇進의 기회

를 보다 많이 주며 또는 職業을 변경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開放되어야 한다.

大學은 특히 知識普及의 새로운 方法을 활용하므로써, 온갖 階層의 사람들을 위한 또한 온갖 目的을 위한 平生教育에 寄與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中等教育에 連繫하는 전체로서의 高等教育은 사회의 文化的 發展에 寄與하고 나아가서는 또한 각자가 지니는 각기의 目標에 있어서의 보다 큰 責務를 이룩케 하는 方向에 있어서 社會의 進展에도 寄與하는 것으로 한다. (*Loi d'orientation de l'ensignement supériéur*, 1968)

라고 規定되어 있다. 여기서는 다시 이에 대하여 敷衍치 않기로 하겠거니와 특히 大學의 機能이 人間形成 및 平生教育과의 관계에서 그 使命의 一斑이 말하여지고 있다는 것이 注目을 끌게 한다.

이 밖에도 大學教育改革에 관한 著書 및 報告書 등이 속속 발표 刊行되고 있는데**, 유리치(Alvin C. Eurich)編인 〈1980年代의 大學〉(*Campus* 1980: *The Shape of their Futur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Eurich, 1968)에서, 가드너(John W. Gardner)는 「大學은 무엇인가—革新社會에 있어서의 高等教育」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으로도 美國에서 論議되고 있는 大學教育改革의 基本方向의 一斑을 엿볼 수 있다고 하리라.

가드너는 教育이야말로 오늘날 적어도 美國의 高等教育을 論하는 경우에 中心課題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첫째 우리는 教育의 地位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다. 美國大學에는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機能이 있다. 研究와 教育과 社會奉仕가 그것이다. 그중 어느 機能이 强調되는가는 개개 大學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다. 2年制의 大學과 4年制의 教養大學은 주로 教育에 관계하며, 大學院은 研究 쪽에 보다 관계가 깊고 또 국가로부터 無償으로 土地가 불하된 대학은 옛부터 社會奉仕에 커다란 力點을 두어왔던 것이다. 이들 세가지 機能 중 어느 하나이고 輕視해서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그중 하나가 輕視되고 있다. 그것은 教育, 특히 대학생에 대한 教育의 機能이라는 것이다. 대학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능으로서의 教育의 復權은 學生不滿의 潮流에 의해서 촉구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를 그러한 方向에로 움직이는 것은 教授 자신의 決意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의 의견에 진지하게 注意를 돌려야겠거니와, 教育과 研究의 균형이라든가 교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資格 및

**이를테면 英國의 Robins Report라든가, 프랑스의 「高等教育基本法」(1968), 또는 西獨의 노이하우스編인 「새로운 大學의 設立에 관한 記錄」(Ralf Neuhaus: Dokumente zur Gründung neuer Hochschulen, Frnz Steiner Verlag, 1968)과 유럽經濟協力開發機構(OECD)에 의한 「高等教育에 있어서의 改革의 事例研究, 獨逸의 두개의 새로운 大學에서의 諸改革」(OECD: Case-studies on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Innovation in two new universities in Germany, 1968)등이 그것이다. 日本 역시 東京大學改革準備調査會報告書 등 각종 改革方案이 발표되고 있다.

Ulrich Teichler, 1970年の時點における西ドイツ高等教育制度改革の狀況(pp. 1~28), "Zur Szene der Hochschulreform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Jahre 1970" (獨語原文揭載 Ss. 29~40), 〈教育研究振興會紀要〉, 第3集, 1971. [參考文獻](p.28)項에는 西獨大學 改革關係文獻이 紹介되어 있어 要緊하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문제는 外部의 壓力으로써 解決되어서는 안되며, 또 論議의 餘地를 남긴채 放置되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둘째, 大學은 敎育課程에 대한 철저한 改革을 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지금 10년간 부단히 改革되어 왔다. 이에 匹敵하리만큼의 大學水準에서의 改革의 움직임이 이미 보이며, 금후 이 움직임에 관하여 더욱 여러가지로 듣게 되리라고 하였다. 반드시 모든 主要 學問分野에서 교수법면에서 改革이 행하여지리라는 것이다. 각 분야에 있어서의 敎育의 目的을 깊이 생각할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敎授裝置와 敎授法의 可能性을 철저하게 探究해 볼 필요가 생기리라는 것이다. 각기 독립한 硏究를 더욱 廣範圍하게 또한 능숙하게 이용하는 일이 응당 必要케 되리라는 것이다. 또 각 學科目을 새로 關聯지어서 행하는 敎授法을 부단히 正當하게 評價하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각각 個別學科가 전보다도 잘 가르쳐질 수 있었다는 結果밖에 생기지 않았다고 하면, 교육과정의 改革은 완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은 또 大學生의 計劃속에 21세기에 人生의 絶頂에 도달하는 靑年들에게 不可缺인 幅의 넓이를 導入해야 된다고 하였다.

세째, 大學計劃의 實行法을 크게 改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大學擴張에 힘쓴 결과 보다 많은 학생들이 大學에서의 修學의 기회를 갖게 된 사실을 想起시키면서, 그러한 功績으로해서 大學 '管理者'를 辯護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네째, 大學曆과 또한 옛부터 4년간에 學士號를 취득하는 制度를 아직 再檢討하고 있지 않은 大學은 조만간 고려치 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早期卒業制度를 許容하는 柔軟性과 또 하나는 4년간에 休學期間을 두어(예컨대 1년간 海外留學을 한다거나, 일년간 職業에 종사한다거나, 일년간 旅行을 한다거나, 혹은 일년간 자기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또는 되고 싶은가 등을 생각해 보는 식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을 延期한다는 柔軟性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現在 4년간으로 學士號와 碩士號를 취하도록 하는 계획의 大學도 있고, 또 6년간에 學士號와 博士號를 수여하려는 곳도 있다고 하였다.

다섯째, 작은 독립한 2年制 敎養大學을 高等敎育의 主流에 올려 놓는 方策을 講究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方法은 2年制 또는 4年制 大學相互間에 協力 하는데서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여섯째, 大學은 敎育의 繼續과 學外敎育에 대해서 더욱 더 고려해 볼 必要가 있다는 것이다. 敎育은 6세로부터 18세(또는 22세)사이에 行하여진다는 思考 方式은 衰退했다. 교육은 平生 계속되는 것이다. 또 교육은 敎室에서만 행하여진다는 思考方式은 과거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敎育繼續의 運動은 달리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大學은 그와 같은 敎育에 대해서 知的인 指導를 해야 된다고 보았다.

일곱째, 美國大學은 보다 큰 一般社會에 대한 奉仕를 자랑으로 삼고 있거니와, 이 奉仕

라는 것은 이제야 어떤 지극히 重大한 問題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大學과 政府와의 관계라든가, 대학이 國際問題의 온갖 면에서 이룩하는 지극히 중요한 役割에 대해서는 論치 않겠다고 하면서, 그는 大學과 보다 큰 社會의 일부 즉 都市와의 關係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都市는 産業社會의 中樞部이다. 그러나 미국의 도시는 현재 온갖 弊害에 사로잡히고 있다면서, 그중에는 無氣力, 犯罪, 貧困, 種族間의 葛藤, 빈민굴, 空氣와 물의 汚染, 學校나 病院의 不足 및 交通癱瘓등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對決하는 일은 이제부터 10년간의 國家的 事業의 으뜸가는 것이 되리라고 보았다. 大學만큼 그와 같은 努力을 하기 위한 基盤으로서 도움이 되는 것은 없는데 그러나 大學 자체는 어디까지나 거의 아무 貢獻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로부터 土地가 불하된 大學이 미국의 農業과 田園地帶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룬 것과 같은 企劃上의 役割은 都市에 대해서는 전혀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이상 考察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歐美大學의 建設에 있어서는 특히 「人間形成의 問題」가 强調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意味하는 것이겠는가? 단적으로 말해서 종래의 大學이 오직 廣義의 科學, 즉 學問知識의 探究에만 注力하였지 人間形成의 問題는 크게 等閑視해 온데 대한 反省에서 오는 하나의 두드러진 傾向이라고 해서 좋을 것이다.

이 점 東洋의 大學槪念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人間形成의 問題가 무엇보다도 强調되어 왔던 것이다. 大學의 理念에 관한 古典중의 古典인 〈大學〉에서는 우리가 培養해야 할 大學人像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이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大學, 一章)

이라는 것이다. 즉, 大學의 道는 光明한 德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고 지극한 善에 머물러 있는데 있다는 것이니 진정 大學人像은 明德·至善之人이었다고 하여서 좋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學問研究에 있어서의 歐美大學教育의 빛나는 傳統을 想考하면서(Perkins, 1966) 한편 그들 大學 역시 近來에 와서는 大學教育에 있어서의 人間形成의 問題에 注力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 西洋의 大學槪念으로 부터 크게 배우면서 한편 東洋大學教育의 傳統인 人間形成이라는 側面은 크게 오늘에 되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아니겠는가?

東西大學槪念의 止揚이란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 만약에 現時點에 있어서 東洋大學教育의 傳統인 人格者培養이라는 人間形成教育의 面을 疏忽히 한채 오직 在來의 西洋大學의 槪念인 學問研究, 眞理探究面에만 始終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를 잃고 다른 하나를 얻는 것밖에 되지 않아, 歐美大學의 後塵을 뒤집어 쓰는 苦杯만 번번히 맛보는 결과가 되

고 말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大學의 理念 및 類型을 創出해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 줄로 안다.

3. 教育學的 大學의 理念 및 構想

새로운 大學의 理念 및 類型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이름붙여 「教育學的大學」이라고 불러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教育學的 大學의 特徵은 단적으로 말해서 무엇인가? 學問研究와 人間形成이 동시에 추구되는 大學이다. 그것을 앞의 節에서는 東西大學概念의 止揚이라고 표현하여 보았던 것인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새로운 大學이란 「明德·至善의 殿堂」이라고 하면 어떨까 한다. 즉 밝은 德을 지닌 人類社會의 指導者를 키우는 것이오 그들이 追求하는 바는 最高眞理를 의미하는 至善의 世界인 것이니, 大學이란 學問研究와 人間形成이 동시에 調和롭게 행하여지는 殿堂인 것이다. 그러므로 明德·至善의 殿堂이라고 표현해 본 것이다.

그런데 明德者요 至善人이 될 것을 目標로 삼는 理想的인 大學生은 在學中 어떤 教育課程을 밟게 되는 것인가? 우선 教育學的 大學의 構成으로 말하면 표면상 현행 종합대학교의 構成과 다를 바 없다. 이를테면, 人文大學이니 社會科學大學, 自然科學大學, 家政大學, 體育大學, 師範大學, 農科大學, 畜産大學, 經營大學, 法科大學, 工科大學, 水産大學, 藥學大學, 醫科大學, 齒科大學, 美術大學, 音樂大學, 神科大學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체적인 單科大學의 종류나 수효는 加減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 있어, 종래의 大學觀과 지금 여기서 擧論케 된 教育學的 大學의 概念 사이에는 根本的으로 다른 한가지 事實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教育學」을 單科大學의 종류나 專攻의 如何를 묻지 않고 共通必須인 教養科目으로 履修케 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教育學的 大學에서 教育學을 그와 같이 중요시하며 共通必須教養科目으로 課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大學課程을 마치고 社會에 進出하는 이들 大學人은 在學時에는 그들 각자가 自己形成에 集中하였으나, 일단 社會人이 되면, 그들은 그 社會의 中堅指導者로서 활약해야 하므로 그는 職業의 종류 여하나 職責의 高下를 물을 것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장차 幹部級人士로 昇進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그에게 要請되며 기대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教育者的 素養과 資質인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人은 누구나 장차 社會에서 指導者로서 활약하기 위한 必須的인 教養의 으뜸으로서 「教育學」講義를 履修할 必要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男女學生이 거의 모두 特殊한 例外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結婚하여 家庭을 갖게 되고 子女를 教育해야만 될 것이니, 전자와 같이 積極的인 의미에서 教育學이 社會指導者로서 必要不可缺한 共通必須教養이라는 것 이외에도, 최소한 父母로서도 절대 要緊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새로운 觀點에서 論議가 進行될 때 우리는 새삼 教育學的 大學의 理念과 構想

이 무엇이며, 왜 「教育學」이 共通必須教養科目의 으뜸이 되어야 하느냐는 까닭을 바르게 理解할 수 있게 되리라고 본다.

Ⅳ. 教育學的 大學에 있어서의 師範大學의 位置와 役割

1. 韓國師範大學 批判

우리는 지금도 생생하게 想起할 수 있는 일의 하나로 1962年頃에 행하여졌던 大學整備案으로 해서 師範大學의 各 學科가 綜合大學校안의 類似學科內에 統合될뻔 했던 일이 있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 三十年史編纂委員會 147~166) 이를테면 國語科는 文理科大學의 國語國文學科로, 外國語科중 英語專攻, 獨語專攻, 佛語專攻은 이 역시 文理大의 英語英文學科, 獨語獨文學科, 佛語佛文學科로, 이하 같은 要領으로 社會科 중 歷史專攻은 史學科로, 地理專攻은 地理學科로, 그런데 一般社會專攻만은 원체 師範大學의 性格에 비추어 보아 複合性을 띄운 것이어서 統合吸收라고 하지만 앞의 여러 科가 單純統合되는 形式을 취할 수가 없었다. 이 一般社會專攻으로 말하면, 哲學科, 倫理學科, 宗教學科, 政治學科, 經濟學科, 社會學科 등등 여러 學科가 合쳐져 마치 人文·社會科學學部만큼의 것을 壓縮시킨 學科專攻分野였으므로 이것을 統合 吸收시킨다고 하여도 수월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를테면 서울大學校師範大學 教授間에도 하나의 弄談이 오고 갖는데 정말 師範大學의 專攻學科로서 제대로 된 뚜렷한 個性을 가진 學科는 一般社會專攻分野만이라는 말까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弄談으로 그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여기에 관해서 後에 다시 論及키로 하겠다.

어떻든 學科統合은 이리하여 師範大學의 數學科는 文理大의 數學科로, 科學科의 生物專攻, 物理專攻, 化學專攻, 地學專攻은 각기 生物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地學科로 統合 吸收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文理大나 그 밖의 大學에 類似學科가 없는 師範大學의 學科만이 存續한다는 것이었으니 이 原則에 따라서 남게 되는 科가 앞서 말한 社會科중 一般社會專攻과 家政科 및 體育科이었는데, 여기에는 教育學科도 들어 간다. 그런데 教育學科는 純粹學問研究를 하는 性質의 것이니 文理大로 옮긴다고 具體的인 線이 그어지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1962年 당시의 大學整備案은 실질적으로 師範大學의 廢止라는 印象을 주기에 充分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悲痛한 狀況 속에서 推進 誕生을 보게 된 것이 1963年에 發足한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이었다.

細部的인 內容 自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民主教育의 搖籃—서울大學校師範大學三十年史〉(1975)에 미루려고 하거니와, 하나 看過할 수 없는 重大事가 있다. 그것은 師範大學의 性格과 學科編成 및 教育課程의 問題라고 하겠다. 즉 師範大學의 各學科가 거의 다 文理科

大學의 類似學科에 統合 吸收될뻔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敎師養成 및 敎育者養成은 文理科大學 또는 其他 大學에서 可能하다는 것이 前提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前提가 과연 妥當한 것인지 우리는 몇가지 점에서 愼重히 檢討 批判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大學의 歷史는 專攻大學의 分化現象의 자취를 實證的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師範大學」(College of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또는 Teachers College)의 設立은 그러한 歷史的 所産物의 하나다. 漁撈에 관한 것을 學問의 對象으로 하는 水産大學 또는 家畜을 硏究對象으로 하는 畜産大學도 있어 그 모두가 人類文化社會發展에 至大한 學問的인 貢獻을 하고 있다. 하물며 같은 學問硏究의 重要性으로 말하면 누군들 감히 水産大學이나 畜産大學은 文理科大學보다 못하다고 낮게 評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形成을 學的 對象으로 삼는 師範大學의 存立理由는 充分한 것이 있는 것이다. 이 社會의 構成員이 人間이요 敎育되지 않은 人間은 禽獸와 같아 人類文化의 荒廢를 招來케 되는 것이니 敎育은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重要한 敎育을 硏究對象으로 삼는 師範大學은 절대 必要한 것이다. 그것을 類似學科라고 하여 統合整備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너무도 師範大學의 使命과 性格에 대해서 沒理解한데서 온 誤判이었던 것으로 안다.

綜合大學校에 있어서의 各 單科大學은 그 固有한 性格 및 機能에 가장 充實해야만 될 것이다. 師範大學에서 醫師養成이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그것을 實踐에 옮기려고 한다든지 한다면 世人은 師範大學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批難할런지 모르겠다. 分明히 그것은 師範大學의 大學으로서의 機能過信이오 越權行爲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論理로서 敎師養成 및 敎育專攻者養成을 師範大學 아닌 다른 大學들이 맡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자연히 現行 師範大學의 運營 내지 組織構成에 혹시 缺陷은 없는지 自體反省의 問題가 나오리라고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現行 韓國의 師範大學은 그것의 存立理由에 充實해야 되리라고 본다. 달리 말하면 師範大學의 固有한 性格 및 使命에 透徹해야 되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歷史的인 原因과 論理的인 誤謬가 있어서인 줄로 안다.

우선 歷史的인 原因이란, 解放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師範大學이 몇몇 곳에 設立되었을 때, 師大 敎授들 자신이 不幸하게도 敎育學關係敎授를 除外하고는 거의 敎育學分野와는 因緣이 먼 분들로서 構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한 世代 이상의 세월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師範大學 전체를 뒤덮고 있는 學的 雰圍氣가 진정한 敎育學을 精緻하게 探究해가는 大學機關이라는 것 이전에 亞流格인 文理大라는 印象을 풍겨 온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에 이와같은 觀察에 큰 誤謬가 없는 것이라면 文理大側이 師範大學의 固有한 機能까지도 吸收 統合하여 遂行할 수 있다고 過信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

다. 어떻던 結果論的으로 말해서 師範大學은 아직까지도 强烈한 師範大學다운 個性을 그編制 및 敎育課程上 構築하는데 너무도 未洽한 點이 많은 것만 같다.

모름지기 師範學의 各學科의 敎授는 그 全員이 廣義의 敎育學專攻者이어야 할 줄로 안다. 여기서 廣義라는 말을 쓴 까닭은 이를테면 社會科敎育學專攻敎授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그는 社會科學 중 그 어느 하나 또는 여러개를 철저히 硏究修練한 사람임은 물론이거니와 한편 나아가 大學院課程에서는 社會科敎育學을 專攻한 사람인 것이니 결국 그는 단순한 社會科學 중 그 어느 하나 또는 여러개의 專攻學者라기 보다도 社會科敎育學을 전공한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廣義의 敎育學者인 것이다. 따라서 단서를 붙일 것 없이 敎育學敎授인 것이다. 이것은 國語敎育學, 數學敎育學, 科學敎育學, 家政敎育學, 體育敎育學 등등 諸分野의 관계 敎授 역시 師範大學의 교수일 때 그들은 例外없이 敎育學者인 것이다. 그래서 師範大學 敎授인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이를테면 醫科大學敎授라고 할 때 그들은 專攻分野가 多岐하다. 內科, 外科, 小兒科, 産婦人科, 耳鼻咽喉科, 眼科, 피부비뇨과, 法醫學科, 거기에 基礎醫學관계 學科 敎授들은 말할나위도 없이, 비록 그들은 專攻은 다를망정 醫學專攻인 敎授라는 점에서는 醫學이라는 公分母로써 鞏固한 學問的 紐帶意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師範大學의 敎授들 역시 이와 똑같은 理由로 해서 애당초 敎育學을 學問的 公分母로 삼는 교수들로써 構成되었어야 옳았던 것이다. 그것이 解放直後 特殊事情으로 해서 어느 師範大學이나 거의 不可能하였던 것인데, 그렇더라도 한 世代에 걸치는 동안에 師範大學의 敎授들은 그 構成員의 固有한 使命에 비추워 보아 自體改善이 있었어야만 옳았든 것인데, 극히 限定된 例外敎授 이외에는 끝끝내 이른바 文理大敎授와 조금도 다름없는 敎育學을 度外視한 其他 學問分野의 專攻者로서 시종했던 것이다. 그 結果는 이를테면 1975年 서울大學校의 冠岳캠퍼스 移轉에 따르는 敎授所屬學科 調整時 거의 師範大學의 各學科를 떠나 本來 각자가 專攻해 온 敎育學 아닌 專攻大學 學科 소속 敎授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한 例로 師範大學 歷史敎育科의 경우를 보면 本來 5, 6名의 교수가 있었던 科인데 단 한 명의 교수를 남기고 모두 國史學科 또는 東洋史學科 및 西洋史學科 교수로 자리를 옮겨 버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최근에는 學生指導問題라는 견지에서 비로소 「大學新聞」에서도 第一面 톱記事로 敎授充員이 時急함을 報道함에 이르고 있는데, 師範大學의 餘他學科의 敎授 實情 또한 이와 大同小異한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의 한 世代 이상 大部分의 師範大學의 敎授들은 敎育學을 專攻으로 삼지 않는 敎授들로써 構成運營되어 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것이 師範大學의 性格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文理大에 統合 吸收되게 만들뻔한 原因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점을 우리는 앞으로도 警戒해야 될 줄로 안다. 즉 師範大學敎授는 마치 醫科大學敎授나 그밖의 單科大學 교수들의 構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敎育學을 專攻한 敎授로써 構成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師範大學의 學科編成에 관해서이다. 이것을 問題視하는 것은 師範大學의 性格 및 使命과 깊은 關聯性이 있기 때문에인 것이다. 서울大學校 師範大學의 경우를 보면, 教育學科를 비롯하여 國語教育科, 外國語教育科(英語·獨語·佛語), 社會教育科(一般社會·歷史·地理), 科學教育科(生物·物理·化學·地學)와 體育教育科로 構成되어 있다. 서울大學校에 家政大學이 設置되기 이전에는 師範大學에 家政教育科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만약에 家政教育學에 관한 教師養成 및 教育學者 養成은 이제는 家政大學에서 아울러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發想과 確信에서 오는 것이라면 師範大學은 그 存立理由에 커다란 挑戰을 받고 있는 셈이다. 宜當, 師範大學은 설사 家政大學이 서울大學校 안에 設置되었다고 하여도 家政教育科는 그대로 存續되었어야 옳았던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를테면 지금의 體育教育科와는 달리 서울大學校 안에 體育大學이 設置되었다고 할때 師大의 體育教育科가 廢止되어야 한다는 妙한 論理가 成立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根本的으로 師範大學의 性格과 固有한 使命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한 大學行政上의 커다란 誤謬의 하나인 줄로 안다.

또 하나 冠岳캠퍼스移轉에 따른 大學機構調整에 있어 看過된 誤謬가 있다. 그것은 統合의 大原則에 부추워 보아도 곧 알 수 있는 일인데도 不拘하고, 工科大學의 工業教育學科와 農科大學의 農業教育學科는 끝끝내 師範大學안에 吸收되지 않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1978學年度를 期하여 工業教育學科는 廢止되고 관계 教授 및 學生들은 各自 願에 따라서 工科大學내의 各科에 吸收되는 것으로 일단 處理된 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과연 이것은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 장차 農科大學내에 있는 農業教育學科 역시 위의 工業教育學科의 경우와 같이 農科大學內에서 吸收 統合되어도 조금도 異常할 것은 없다는 얘기인지?

師範大學의 性格이나 機能 및 使命에 비추어 볼 때 工業教育學科나 農業教育學科는 마땅히 師範大學안에 吸收되었어야 할 性質의 것으로 본다. 또한 당시에 있어서는 미쳐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吸收되어야 할 性質의 學科인 것이다. 그리고 더우기 工業教育學科가 工科大學에서는 廢止된다고 하는 時點에 있어서는 마땅이 師範大學내에 工業教育學科를 設置하여야만 옳았던 것이다. 國策的으로 수많은 工業高等學校내지 工業專門學校까지 政府가 앞장 서서 속속 設立하고 있는 現 實情下에 工業教師 養成의 學科를 師範大學안에 設置하지 않고 다만 工業教師의 絶對人員確保가 不能하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것은 심한 自家당착을 면할 길이 없을 것 같다.

이 밖에도 師範大學은 그 學科編成에 있어 크게 補完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한 例로는 서울大學校師範大學의 경우를 具體的인 事例로써 생각한다면, 漢文教育科, 國民倫理教育科

中國語敎育科, 日語敎育科, 西班牙語敎育科, 音樂敎育科, 美術敎育科, 商業敎育科, 工業敎育科, 農業敎育科 그리고 家政敎育科 등등이 당장에 設置되어 마땅할 것이다. 이와같은 諸敎育學科設置를 等閑視하는 것은 師範大學의 機能을 그만큼 弱化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韓國敎育發展에 그 固有한 負荷된 責務를 다 못하고 있다는 批難을 들어도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서울大學校 자체가 그렇듯이 서울大學校의 機構編制 내지 運營實際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各大學敎育의 實際에 크게 模範이 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마치고 있는 것이 事實이라면, 서울大學校 자체의 充全을 위해서는 물론이오 그 敎育效果 내지 영향력을 勘案하여서도 결코 些少한 일로 돌려 둘 수는 없는 일인 줄로 안다.

2. 大學社會의 共同善과 「敎育學」

나는 이미 앞에서 未來社會의 性格에 비추어 보아 앞으로의 世紀는 「敎育의 世紀」라고 일컫어야 될 것이요, 따라서 「敎育學」이야말로 大學社會에 있어서의 共通必須敎養科目의 으뜸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陳述한 바 있다.

사실, 近來에 와서 재미있는 現象의 하나로 專攻分野가 무엇이건 누구나가 異口同聲으로 거의 異常하리만큼 우리들 敎育學者의 强要는 물론이거니와 要請없이도 敎育의 重要性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일까? 卑近한 例의 하나로서 未來學에 깊이 關係하고 있으며 行政學이 專攻인 某敎授의 경우는 機會있을 때마다 즐겨 敎育 및 敎育學에 관련된 論題를 다루고 있어 우리의 注目을 끌고 있다. 말할것도 없이 그러한 人士가 엄격한 의미에 있어 敎育學者가 아님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이다. 그렇건만 많은 時間과 많은 精力을 敎育에 쏟고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이러한 구체적 하나의 事例는 비단 몇몇 行政學者의 경우에서만 發見되는 일이 아니다. 그가 專攻이 醫學이건 工學이건 經濟學이건 文學이건 哲學이건 歷史學이건 또는 生物學이건 物理學이건 化學이건 地學이건 數學이건 體育學이건 軍事學이건 그 밖의 敎育學아닌 專攻學者에 있어 萬事는 "사람을 만드는 데 달렸다"고 하여 敎育의 重要性을 한결같이 입모아 强調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完全히 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 敎育學者로서 이 이상 기꺼운 現象과 趨勢는 달리 없는 줄로 안다. 확실히 그들 敎育學 전공 아닌 諸學者들의 敎育重視의 眼目 내지 主張은 옳은 일인 줄로 안다.

다만 敎育學專攻者와 敎育學非專攻者와의 사이에는 敎育 및 敎育學에 대한 關心에 있어 전체 比率과 力點에 엄연한 差異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또한 마땅히 있어야 옳은 것이다. 그것은 마치 敎育學者라고 하여도 社會現象으로서의 政治나 經濟 및 社會에 대하여 또는 自然現象으로서의 生物이나 物理, 化學 및 地學 등에 대하여 그리고 藝術文化現象으로서의 美術이나 音樂 또는 演劇에 대해서 또는 體育이나 特定 宗敎分野에 대하여 큰 關心을 안갖

는 것이 아니며 또 가져서 안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도리어 教育學者는 그 학문적 특성으로 보아 여기에 列擧한 것 이외에도 自然 및 文化現象 전반에 걸쳐 精通할 수록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그렇건만 그의 中心學問研究對象이 教育이요 教育學임에는 寸分의 讓步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教育學者와 教育學專攻 아닌 學者 사이의 엄연한 本分上의 區劃을 지어 놓고 생각해 볼 때 그들 각자가 遂行하여야 할 固有한 任務자체에는 조금도 曖昧한 것이 없다고까지 말해서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는 教育學者만이 教育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西洋中世社會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信仰」에 共同善을 찾았듯이 지금은 그리고 장차는 教育에 社會的 共同善이 追求되어야 하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例示한 바와 같이 가장 이와같은 점에 있어서 鋭敏한 知性人들인 非教育學專攻學者가 異口同聲으로 '教育'의 重要性을 揚言함에 이르렀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나는 論理的인 次元으로 보거나 事實 現象的인 次元에서 보거나 「教育學」은 마땅이 우리들의 社會에서 그리고 특히 明德·至善人의 殿堂인 大學社會의 共同善으로서 追求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미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마땅이 「教育學」은 共通必須教養科目중 으뜸가는 科目으로서 모든 大學人에게 課하여져야 한다는 論據이기도 한 것이다.

3. 教育學的 大學의 求心處

여기에 있어 우리는 다시금 教育學的 大學에 있어서의 師範大學의 位置와 役割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안다.

커어(Kerr)는 일찌기 〈大學의 效用〉이라는 책에서 巨大한 機構를 가진 現代大學의 性格을 가리켜서 유니버시티로부터 멀티버시티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輕妙한 筆致로 밝혀 놓은 적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멀티버시티(multiversity)는 矛盾 투성이의 組織이다. 그것은 하나의 組織體는 아니고 群集한 世帶이다. 學部와 大學院, 人文, 社會 및 自然科學者, 各種職業訓練所, 學問에 직접 關係가 없는 職員, 大學管理局이라는 식의 주서 몽은 것이다.
>
> 그 限界는 不分明하여서, 同窓會, 議員, 農民, 實業家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것들은 모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學內機構에 관계하고 있다. 하나의 組織體로서 그것은 멀리 過去와 未來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現在에 관해서는 問題를 가지는 일이 많다. 그것은 奴隷와 같이 社會에 奉仕하지만, 동시에 그 社會를 批判하고 때로는 가차없이 호되게 공격하기도 한다. 또한 機會均等을 信條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가 하나의 階級社會이다. 教師와 學生으로부터 이루어진 中世的인 모임인 때에도 그러하였거니와 그러한 모임에는 共通된 目的이 存在하였다. 그러나 多角化한 大學에서는 그 目的은 지극히 多樣하여서 때로는 矛盾되고 있는 일조차도 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거기에 生命을 주는 源泉으로서의 하나의 中心이 있다. 그런데, 이 팽창해 버린 大學에는 몇 개인가의 中心이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훌륭한 標語도 있으나 도대체 이 팽창한 大學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는 根本問題의 解決에 흡족한 것은 그다지 없어서 거기에 問題가 남아있다. (Kerr 23~24)

고 말하므로써 멀티버시티가 무엇이며 그와같은 멀티버시티가 지니고 있는 根本的인 苦憫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지적했던 것이다. 그는 또 다른 個所에서 멀티버시티안에서의 生活이 어떤 것인지를 비유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그 옛날 大學은 牧師가 있는 한 작은 마을같이 여겨지고 있었다. 在來의 종합대학교(university)는 마을로부터 都市로 昇格하였다. 그것은 소수의 知識人이 다스리고 있는 한개의 産業都市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것이 더 나아가 멀티버시티(multiversity)가 되고 보면, 그것은 무한히 多樣한 것을 지니고 있는 大都市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길을 잃으며, 어떤 사람은 指導層으로 타 올라 앉는다. 대부분은 그 細分化된 文化部門의 하나에 몸을 비켜 서고 있다. 거기에는 마을이었을 때와 같은 社會的 連帶感은 희박하지만 동시에 좁은 마을에 갇히어 있었을 때와 같은 閉鎖性은 없다. 産業都市의 경우와 같은 目的의 自覺은 없으나, 보다 많은 훌륭한 方式을 지니고 있다. 大都市에서는 創造的인 人物도 떠내려가는 자도 無名의 存在로서 숨어 있다. 마을이나 都市와는 반대로 '大都市'에는 文明의 全體가 展開되고 있어서 그 不可缺한 한개의 單位를 形成하고 있다. 都市周邊의 社會에로의 移轉, 都市에로의 移住는 대단히 활발하게 되고 있다. 都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는 하나의 法의 支配下에 各樣各色의 企劃이 行하여지고 있다. (Kerr, 50~51)

이렇게 말한 그는 다시금 美國에 있어서의 멀티버시티의 存在理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약간 다른 側面에서의 照明도 잊지 않고 있다. 즉

지금의 美國의 멀티버시티의 存在 理由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歷史的 必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答이 된다. 學外의 社會와 步調를 맞춘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答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 以上으로는 永遠한 眞理를 守護하고 그것을 普及하며 그것을 檢討하는 高貴한 精神의 所有者인 그러한 知的貴族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새로운 知識을 追求하려고 하는 그러한 貴族도 전혀 現存하지 않으며, 또한 大學의 歷史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러한 貴族들, 發展해가는 文明의 그다지도 많은 部門에서 奉仕했던 貴族들도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이다. 한 敎育機關으로서는 內部的으로는 제각기 따로따로일런지도 모르나 그것이 生産的이라는 점에서는 一貫하고 있다. 變化에 의하여 따로따로 흩으러져 있지만, 自由라는 安全弁을 가지고 있다. 유독 내세워서 建學의 精神이니 해서 요란스럽게 소리내는 일은 없어도 敎授들은 眞理에 獻身하고 있는 것이다. (Kerr. 54~55)

이렇듯 커어에 의해서 묘사된 現代의 美國大學인 멀티버시티는 확실히 多彈頭型의 學問研究 및 敎育의 機關으로서 그 옛날 中世大學의 경우와 같은 유니버시티는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오늘의 멀티버시티的인 大學을 記述的인 現象說明으로 끝여 둔채 더 이상 思考를 進展시키지 않아도 좋은지 모르겠다. 역시 커어의 所論에 있어서도 可能만 하면 그와같은 멀티버시티를 統合시킬 수 있는 求心處의 發見이라는 것은 크게 要望하고 있는 일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다만 그와 같은 求心的 役割을 할 적절한 實體가 무엇인지 그것을 明確하게 認識하고 그것을 指摘 提示치 못하는데 그의 苦憫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있어 나는 감히 앞으로의 大學은 유니버시티로부터 멀티버시티가 되었던 것을 이

번에는 멀티버시티로부터 유니버시티에로 돌려 놓는 일을 해야 되리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에 새로운 유니버시티의 求心處는 그 옛날 西洋中世大學의 경우 神學이었던 것과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大學社會의 共同善으로서, 따라서 大學社會의 求心處로서 누구나 首肯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어야 함은 勿論인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부터 結論을 말한 셈이기도 하다. 그것은 「教育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장차의 새로운 大學의 성격은 「教育學的 大學」이라고 命名해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無理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教育學的 大學에 있어서의 師範大學의 位置와 役割은 무엇인가? 말할 나위도 없이 師範大學은 종합대학교 안에 있어서의 다른 여러 單科大學과 마찬가지로 諸單科大學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教育學」이 종합대학교에 있어서의 中心統合的인 求心處의 機能을 가지게 되고 役割을 하는 것이니만큼 教育學專攻인 大學으로서의 師範大學의 存在가 크게 意識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師範大學 자체가 깊이 考慮할 일이 하나 있는 줄로 안다. 그것은 師範大學의 固有한 性格 내지 機能的 特性이 '分析的인 것'과 '統合的인 것' 중 하나를 擇한다면 分析的이라기 보다는 統合的인 性格이 강한 學問研究·教育機關이라는 사실이다. 이 점 師範大學이 非師範大學과의 關係에 있어서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固有機能의 根本的 差異에 크게 覺醒한다면 師範大學 자체의 비약적인 發展은 물론이거니와 師範大學이 새로운 理念과 類型의 종합대학교, 즉 教育學的 大學에서 이룩하는 役割은 실로 至大한 것이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教育學」과 師範大學은 教育學的 大學의 꽃(求心處)에도 비유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 添言할 일은, 이미 앞에서도 論及하였듯이 새로운 大學校는 그 理念에 있어 明德·至善의 殿堂이오 東洋的인 人格者形成의 傳統과 西洋的인 眞理探究의 傳統이 調和된 것이 거니와, 近來에 와서 유독 東洋的인 傳統이 크게 强調됨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 옛날 西洋中世大學에서는 教師資格證을 發付하는 것이 큰 特權中의 하나로 行使된 적이 있었던 것과 관련지어 現代的 意味附與를 하여도 좋은 일일런지도 모르겠다. 즉 여기에 提起한 教育學的 大學에서는 비록 누구나 共通必須教養科目의 으뜸으로서 「教育學」을 履修하지만 教師資格證은 주지 않는다. 그러나 大學人이 指導者的 資質을 體得하고 教育者로서의 修練을 쌓고 卒業하는데 있어서는 그는 教師資格證의 所持與否를 묻기전에 이미 종래의 大學出身者와는 根本的으로 다르게 교육받은 사람들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教育學的 大學은 바로 이와같은 일들로 해서 在來의 大學과는 名稱부터 달리 불러서 좋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 옛날 哲學的 大學에서 哲學이 中心이었듯이 未來의 教育學的 大學에서는 「教育學」이 응당 中心이 되어야 하리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Ⅴ. 結　　言

여기까지 쓰고 보니 本稿에 있어서는 달리 結言이라는 것이 必要없을 것만 같기도 하다. 다만 몇 줄로 그간의 論旨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大學의 理念과 類型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大學의 歷史는, 中國古代의 大學으로써 대표되는 倫理學的 大學을 비롯하여, 西洋中世大學의 경우와 같은 神學的大學, 그리고 19세기의 近代大學인 哲學的 大學, 그리고 美國의 現代大學으로써 代表되는 科學的 大學의 順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略記해 보았다.

둘째, 未來의 時代는 人類의 共同目標가 恒久平和樹立에 있는 것으로 보아 教育이 이룩해야 할 役割은 決定的으로 至大한 것이니만큼 「教育의 世紀」라는 말로 표현하여 보았던 것이며, 이러한 前提下에서 教育學的 大學의 理念 및 構想에 대하여 開陳해 보았다.

세째는 教育學的 大學에 있어서의 教育學 및 師範大學의 位置와 役割에 관하여 論述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자연 韓國의 師範大學에 대한 自家批判을 하는 동시에 한편 大學社會의 共同善으로서의 「教育學」에 관하여, 그리고 師範大學은 教育學的 大學의 꽃이요 求心處가 된다고 結論지어 보았다. 이것은 멀티버시티로서의 苦惱를 안고 있는 現代大學의 갈 길을 教育學的 大學의 槪念으로써 새로운 次元에서 유니버시티로 還元發展 시키는 길을 提示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參 考 文 獻

1. 周予同 (1933), **中國學校制度** (山本正一譯, 學制を中心とせる支那教育史), 商務印書館.
2. 佐藤清太, 多賀秋五郎, 林 友春 (1963), **東洋教育史**, 東京, 御茶の水書房.
3. 余書麟 (1959), **中國教育史** (上, 下) 臺北, 臺灣省立師範大學出版組.
4. **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第六, 小獸林王二年條.
5. 韓基彥 (1971), 「韓國大學史와 成大의 開校年度」 **成大新聞**, 562號, 4.7.
6. Rashdall, Hastings (1895, 1936), *The Universites of Europe in the Middle Ag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7. 梅根 悟編 (1974), **大學史** (上, 下), 東京, 講談社.
8. Newman, John H.C. (1852, 1959), *The Idea of a Univers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9. 皇 至道 (1952), **大學制度の研究**, 廣島, 福村書店
10. 島田雄次郎 (1964), **ヨーロッパの大學**, 東京, 至文堂

11. Fichte, J.G. (1817), *Deduzierter Plan einer zu Berlin zu errichtenden höhern Lehranstalt* (梅根 悟譯, ベルリンに創立豫定の高等教授施設についての演繹的プラン)
12. Steffens, Henrik (1809), *Vorlesungen über die Idee der Universitäten*(梅根 悟譯, 大學の理念についての講義)
13. Humboldt, W. von (1810) *Über die innere und äußere Organisation der höheren wissenschaftlichen Anstalten in Berlin* (梅根 悟譯, ベルリン高等學問施設の內的ならびに外的組織の理念)
14. Blättner, Fritz (1968) *Geschichte der Pädagogik*, Heidelberg, Quielle & Meyer
15. Jaspers, Karl (1952) *Die Idee der Universität*, Berlin, Springer-Verlag.
16. 韓基彥 (1971), 「美國大學의 成立過程과 敎育理念의 展開」 **硏究論叢**, 第1輯, 서울大學校師範大學敎育會
17. Horn, Francis H. (1964) *The American University: Its History, Character and Prospects*, Lecture at American Studies Seminar, Wane State University.
18. Hutchins, Robert M. *The Higher Learning in America*,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 Hutchins, Robert M. (1937) "What is Job of Our Colleges? "*New York Times Magazine.*
20. Hutchins, Robert M. (1956) *Some Observations on American Educa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1. 韓基彥 (1965), **現代敎育思潮**, 서울, 法文社
22. Liaison Committee of the State Board of Education and i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1960) *A Master Plan for Higher Education in California*, 1960～75.
23. *Loi dórientation de lénsignement supériéur* (1968).
24. Ewrich, Alvin C. (ed.) (1968) *Campus* 1980: *The Shape of the Future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New York, Delacorte Press.
25. **大學**
26. Perkins, James A. (1966) *The Univeusity in Transition*,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7. 서울大學校師範大學三十年史編纂委員會 (1975), **民主敎育의 搖籃, 서울大學校師範大學三十年史 (1945～1974)**, 서울, 韓國能力開發社.
28. Kerr, Clark (1963) *The Uses of the Univers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The Concept of the Educational University

Hahn, Ki-Un
(Department of Education)

Abstract

In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idea, character and type of the new university that we will establish in the future, I have made an approach from the aspects of educational history and educational philosophy.

I have referred to the new university as the Educational University and explained the reason in three phases. The first phase deals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idea and type of the university. In this part I investigated how the idea and type of the university underwent the change from the university of ancient times to the modern university of which th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are modeled after.

The second phase is about the idea and conception of the Educational University. The new century should become the age of permanent peace that will bring permanent prosperity to mankind, and in order for this to be fulfilled, much emphasis should be placed on education as an enterprise of the whole mankind. So, I used the term the Educational University, and tried to establish the character of the new university. In summary the idea and conception of the new university should be stated with regard to the Educational University.

The third phase is about the status and role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 the Educational University. In this part I criticized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college of education doesn't recognize its uniqueness and function because it is included with the view of pararrel colleges. At the same time, I attempted to establish pedagogy as the common goal of university society and the role of the college of education. Since I allotted most of this paper to this third phase, I chose the title of my summary to be "The Concept of the Educational University."

The point of my argument can be stated as follows. From the viewpoint of the idea and type of the university, the university has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ethical university which represents ancient China, the theological university representative of the universities in the West during the medieval age, the philosophical university like those

in the 19th century and the scientific university for which modern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stand.

Since the common aim of mankind in the future is to establish permanent peace, the role of education is critically important. I called the new age the educational centry, and under this premise I developed the idea and conception of the Educational University.

Finally I discoursed upon the pedagogy of the Educational University and the status and role of the college of education. Here I criticized the college of education in Korea, and stated the pedagogy as a common goal of university society. My conclusion is that the college of education is the centripetal core of the Educational University. I tried to show the way how we can convert the modern universities which are in agony as multiversity into the university and develop them in a new dimension.